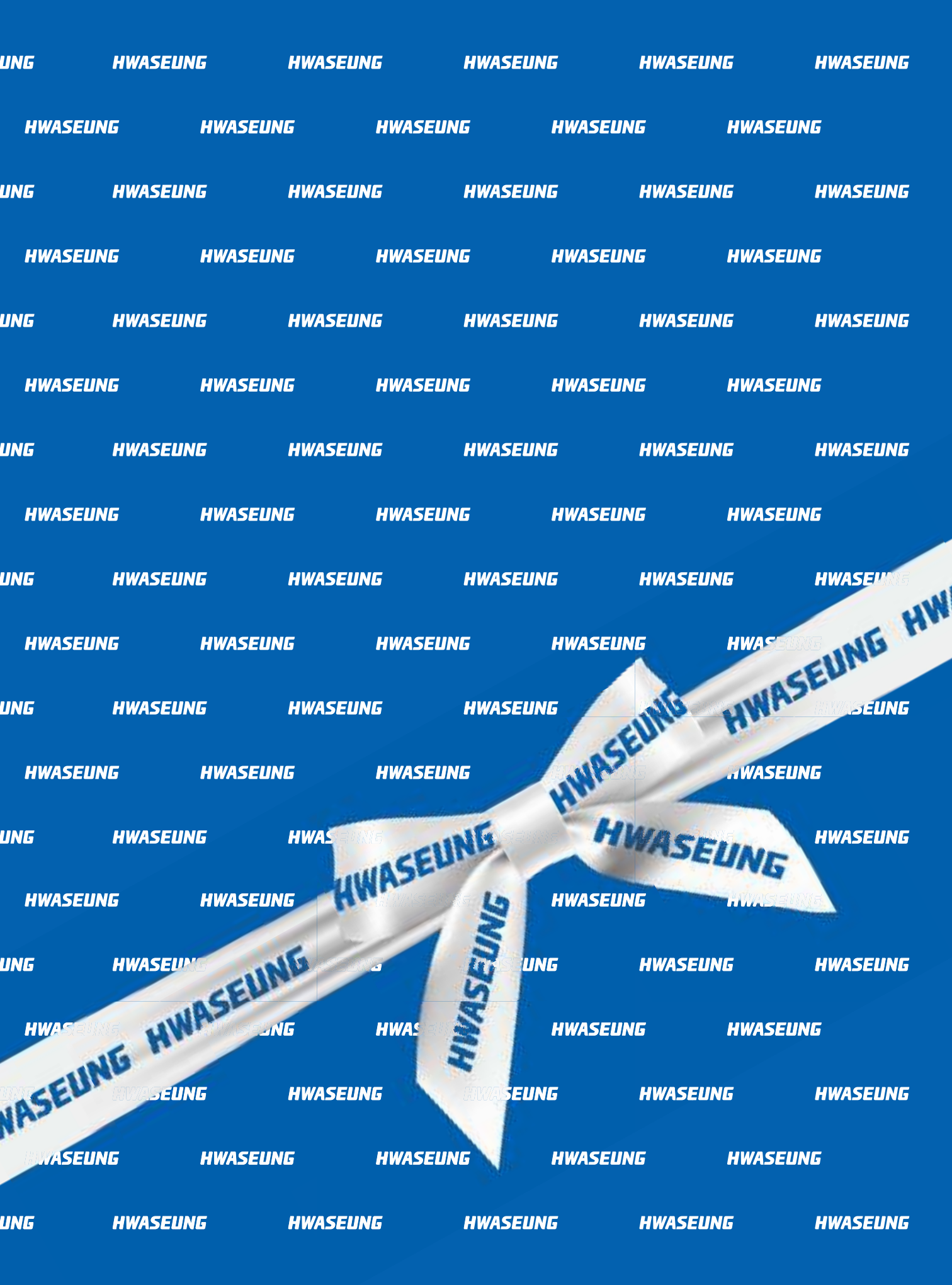




70년을
꾸준하게
변함없이
한결같이

그 진심으로
화승 70년이 되었다.

그 진심이면
이제 화승 100년이다.

화승 진심

HWASEUNG Life
Magazine

2023 AUTUMN
Vol 72



지향하는 바를 위해
하나의 양식을 만들고

소통을 위한

글꼴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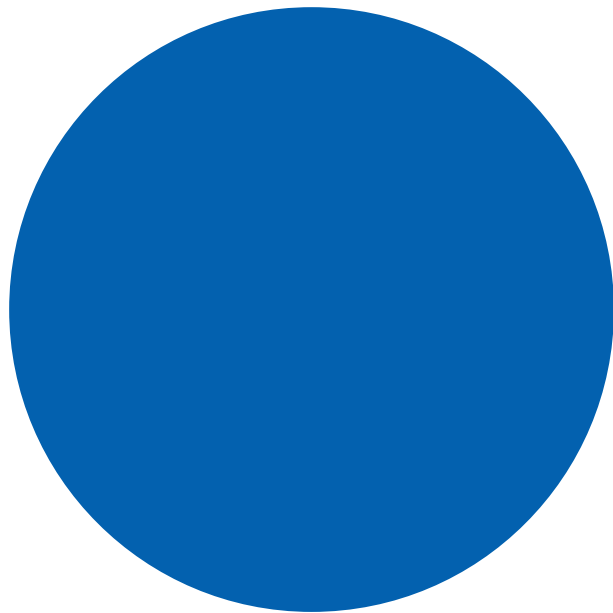
상징과 성향을
담는다.

고딕 양식,
고딕 서체
고딕^{Gothic}이다.

아래로부터 위로,
처음부터 끝까지
초지일관 —

꺾이지 않는 마음,
흔들림 없는 자세로
진심을 —

올곧게 지속 가능한
화승의 진심,
고딕이다.



화승,
파랑에 꿈을 찍고
블루에 별을 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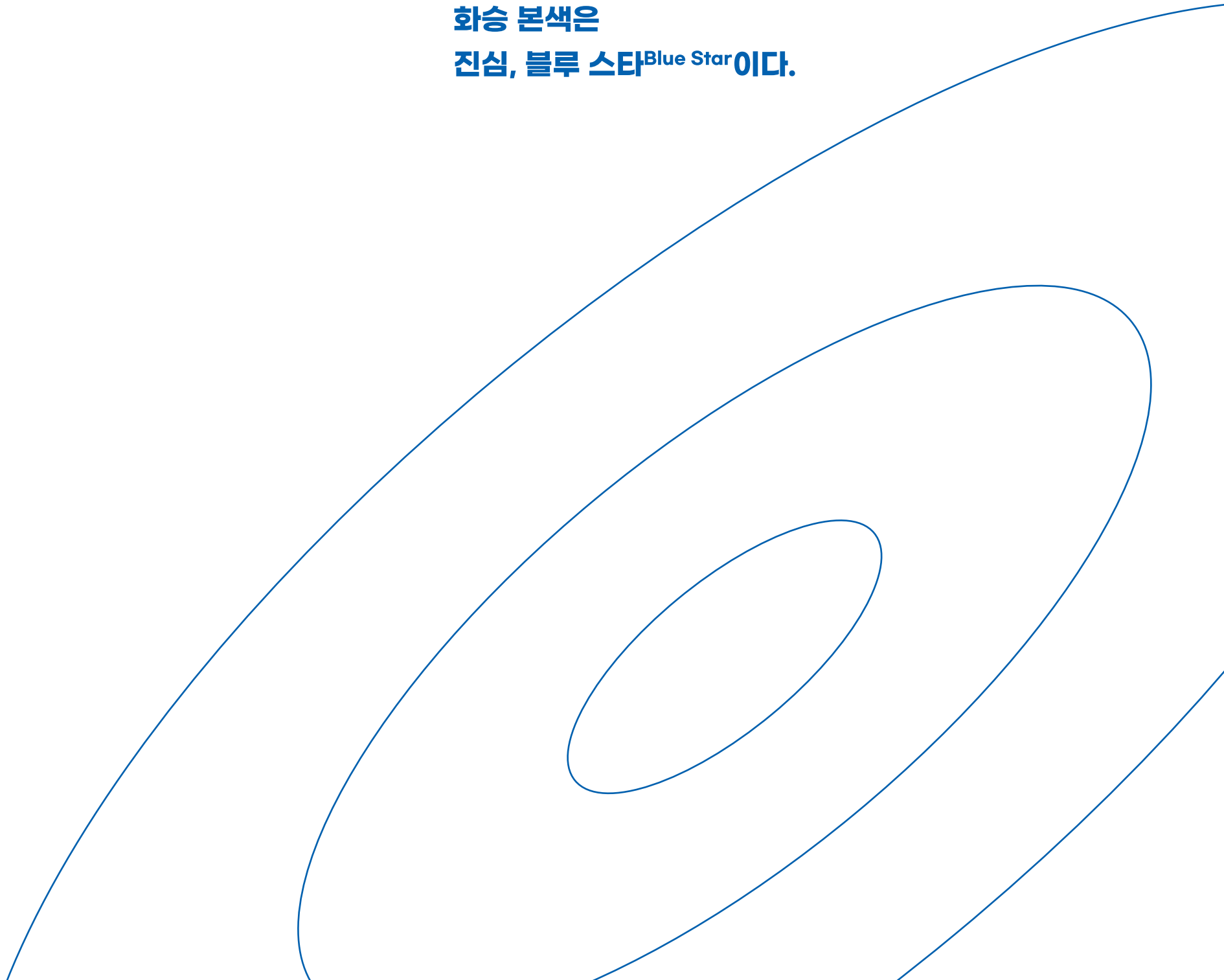
그리하여
화승 본색은
진심, 블루 스타^{Blue Star}이다.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지만
보이는 걸로 전부를 가늠한다.

바다와 하늘은 푸른색이고
믿음, 신뢰의 상징은 블루이듯.

푸른색이자 파랑이고
파란색이자 블루이다.

지구라는 푸른 별에서
사람들은 파랑새를 찾고
기업은 청사진을 펼친다.



70 71 72 73 74

79 78 77 76 75

80 81 82 83 84

89 88 87 86 85

90 91 92 93 94

99 98 97 96 95

100th

70+30=

최초의 세 자리 숫자이자
성적으로 매기면 최고점이다.

100,

부족함 없이 딱 들어찬
그래서 순우리말로 ‘온’이다.

“우리 똥강아지~ 만점 받았네!”

100점은 백 점인데 만점이라 한다.

100에 100을 곱해 부르다니,
잘한 것에, 장한 것을 곱한 것인가.

화승, 그동안 잘 해왔다.

이제 100년 기업을 향해

100이라는 진심까지 곱해

장한 기업, 위대한 기업으로 나아가자!

COVER STORY

꿈을 초석으로 70년 역사의 반석을 다진 화승. 현수명 선대회장에 이어 현승훈 회장에 이르기 까지 공동체에 대한 책임과 고용 확산이라는 기업인으로서의 사명, 인화를 바탕으로 함께한 임직원들의 열정이 있어 지금의 화승이 있습니다. 화승 70년, 선물 같은 당신들의 아름다운 행보에 감사함을 전합니다.



CONTENTS

2023 AUTUMN Vol.72

총괄 화승 그룹홍보실 김병호 실장

화승 그룹홍보실 심일욱 선임

화승R&A 김무진(기획팀 사원)

화승소재 임상호(영업관리팀 팀장)

화승T&C 박건국(관리팀 사원)

화승인더스트리 이성수(IR/경영관리팀 매니저)

화승케미칼 유광수(경영지원팀 매니저)

화승네트웍스 김기훈(전략기획팀 선임)

베트남 화승비나 정영섭 부장

미국 화승코퍼레이션 ARHQ 최일영 책임

중국 화승코퍼레이션 CRHQ 문지훈 선임

2023년 9월 25일 발행(정보간행물)

신고번호 연제, 바00003

신고일자 2016년 8월 30일

발행인 현지호 편집인 김정식

기획·진행 화승 그룹홍보실 김병호·심일욱

편집·디자인 오즈커뮤니케이션(02-515-3681)

인쇄 우일인쇄

퍼낸 곳 화승(www.hwaseunggroup.com)

주소 부산시 연제구 중앙대로 1079(연산동)

장천빌딩 화승 그룹홍보실

전화 051-850-7037 팩스 051-850-7001

메일 illwook.sim@hscorp.com

SETTING

12 70th The 진심

화승, 새로운 얼굴 CI 공개

14 70th New 진심

화승, 새 얼굴에 '인화'의 가치를 담다

16 70th New Step

“안녕하세요~ 뉴 페이스 화승입니다!”

20 70th Celebration

화승 70주년을 넘어
승승장구 100년으로

24 70th 캘린더 포커스 ①

작은 바자회에서 큰마음을 나누다
제2회 베트남 화승비나 바자회 현장 속으로

26 70th 캘린더 포커스 ②

화승 70주년 기념, Fun-Fun 이벤트



ACTING

32 진심 인터뷰

오롯이 걸어온 경동건설 50년,
김재진 회장의 집에 대한 집념

38 화승 인사이드

화승, 제조기반에서
기술 중심의 테크기업으로

46 진심 엔진

CEO와 함께하는 공감,
팀장들과 함께하는 소통
화승, 테크기업 향한 워크숍 개최

50 화승 디스커버리

부러우면 브라우저에서 만나자
여덟끼니, 베이커리 플래그십 스토어 오픈

EXCITING

58 문화피처링 ①

죽기 전에 꼭 한번, 국립발레단 공연!
발레 돈키호테와 함께한 화승 70주년

64 문화피처링 ②

한밤에 화승으로 대동단결,
70주년을 흥경민과 함께하다

68 문화프리즘

화승 70주년 경축, 강렬한 색채의 향연
색채의 마술사, 김용기 화백 초대전

72 이심진심

침표에서 느낌표로,
화승 신입사원 봉사단의 와타캠프 참여 현장

76 제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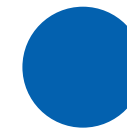
알기 쉬운 공정거래(하도급) 법령 및 제도(2)
'23년도 상반기 공정거래위원회 제제

78 HS NEWS



SETTING

거짓 없이 참된 마음
진정성이 느껴지는 마음
일편단심 성심을 다하는 마음...
이 모든 마음을 가리켜
‘진심^{眞心}’이라고 합니다.
창립 70주년을 맞아
화승이 새 얼굴을 공개했습니다.
새로운 얼굴에
누가 되지 않도록
진심으로 노력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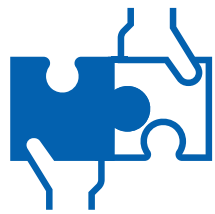
HWASEUNG

화승



화승의 경영 철학, 인화^{人和}의 가치 반영

오늘의 화승 70년을 견인해온 경영 철학으로 ‘여러 사람이 서로 화합한다는 뜻’의 ‘인화(人和)’가 새로운 CI의 콘셉트다. 2005년 이후 18년 만에 단행된 기업 이미지 통합 작업이다. 화승은 전 임직원들이 하나가 되는 화합을 통해 시너지를 창출하고, 긍정적인 미래 성장을 위해 발걸음을 함께하겠다는 의지를 새로운 얼굴에 담아냈다.



화승 새 얼굴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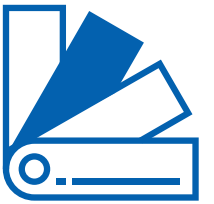
화승이 2023년 창립 70주년을 맞아 새로운 얼굴을 공개했다. 화승의 미래 가치와 비전을 담은 C-I(Corporation Identity)로, 70년이라는 역사적 시간을 토대로 100년 기업을 향해 새롭게 도약한다는 의지를 엿볼 수 있다. 지난 8월 7일, 화승의 정체성을 담아 대내외에 선보인 새 CI의 의미와 상징, 그 속에 담긴 이미지 전략에 대해 짚어본다.

화승의 정체성, 고딕^{San Serif}으로 시각화

새로운 CI는 불필요한 장식적 요소를 과감히 없애고, 단순 명료하게 화승의 정체성을 표현한 디자인을 반영했다. 영문 회사명 ‘HWASEUNG’의 각 알파벳을 대문자 형태로 표현하고 굵은 획의 고딕 서체(명조와 달리 글꼴에 뼈침(굴절, Serif)이 없어(San) 더 크고 굵은 게 특징)를 적용, 화승의 신뢰성과 기술의 정체성을 시각적으로 나타냈다.



블루 스타 컬러 적용으로 화승의 가치 고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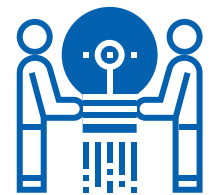


‘인화’를 모티브로 한 화승의 새 CI에는 ‘영원히 빛나는 별처럼 함께 화합해 나가겠다’는 의미를 지닌 ‘블루 스타(Blue Star)’ 색상을 사용하였다. 세계적으로 가장 선호도가 높은 컬러에 빛나고 반짝이는 상징을 담은 블루 스타는 창의적이면서 유연하며 사람과 사람을 잇는 따뜻한 화승의 가치를 표현하는 동시에 안정과 신뢰감을 더한다.

‘인화’의 가치를 담다

화승, 도전과 혁신으로 100년 기업 가시화

화승 워드 마크에는 ‘인화’의 부드러운 이미지를 전달할 수 있도록 했다. 강하면서도 부드럽고 유연함 속에서도 꺾이지 않는 마음을 느낄 수 있다. 나아가 화승의 중장기를 내다보는 심미안과 화승인 모두가 사명감을 가지고 과감한 혁신과 도전을 추진하면 100년 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다는 가시적 의지와 그에 따른 비전을 품고 있다.



“안녕하세요~ 뉴 페이스 화승입니다!”

2023년 8월 7일을 기해 화승의 얼굴이 새로워졌습니다. 창립 70주년을 발판으로 새롭게 거듭나고자 하는 의지와 노력이 담긴 이번 CI는 화승 임직원들의 눈길과 손길, 발길이 닿는 어느 곳에서나 만날 수 있습니다. 더욱 화승다워진 뉴 페이스, 어느 곳 어느 위치에서 얼굴을 알리고 있는지 한데 모아보았습니다.



●
연간 1,000만 명 넘게 이용하는 김해국제공항에서...



●
1일 유동 인구 4.3만 명, 연간 15.6만 명이 이동하는 부산역에서...



●
화승의 베이스캠프인 부산 연산동 장천빌딩 사옥에서...
새로운 CI(Corporate Identity)로 더욱 새로워진 화승의 얼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화승 본사 출입문(부산 연산동)



2층 로비 인포메이션 데스크



엘리베이터 공간

새로운
화승의 얼굴은,

눈에 들어오고
손에 닿고
발길이 머무는 곳에 있습니다.



ID카드 자동출입구



쇼룸 인포메이션 데스크

이제
우리의 얼굴은,

회사 로비나 사무공간에서
복도 혹은 엘리베이터에서
회의실이나 쉬는 공간에서

견고하고 세련되게
화승다운 아우라를 풍깁니다.



화승 인화(人和) 쇼룸



층별 안내판

화승 70주년을 넘어 승승장구 100년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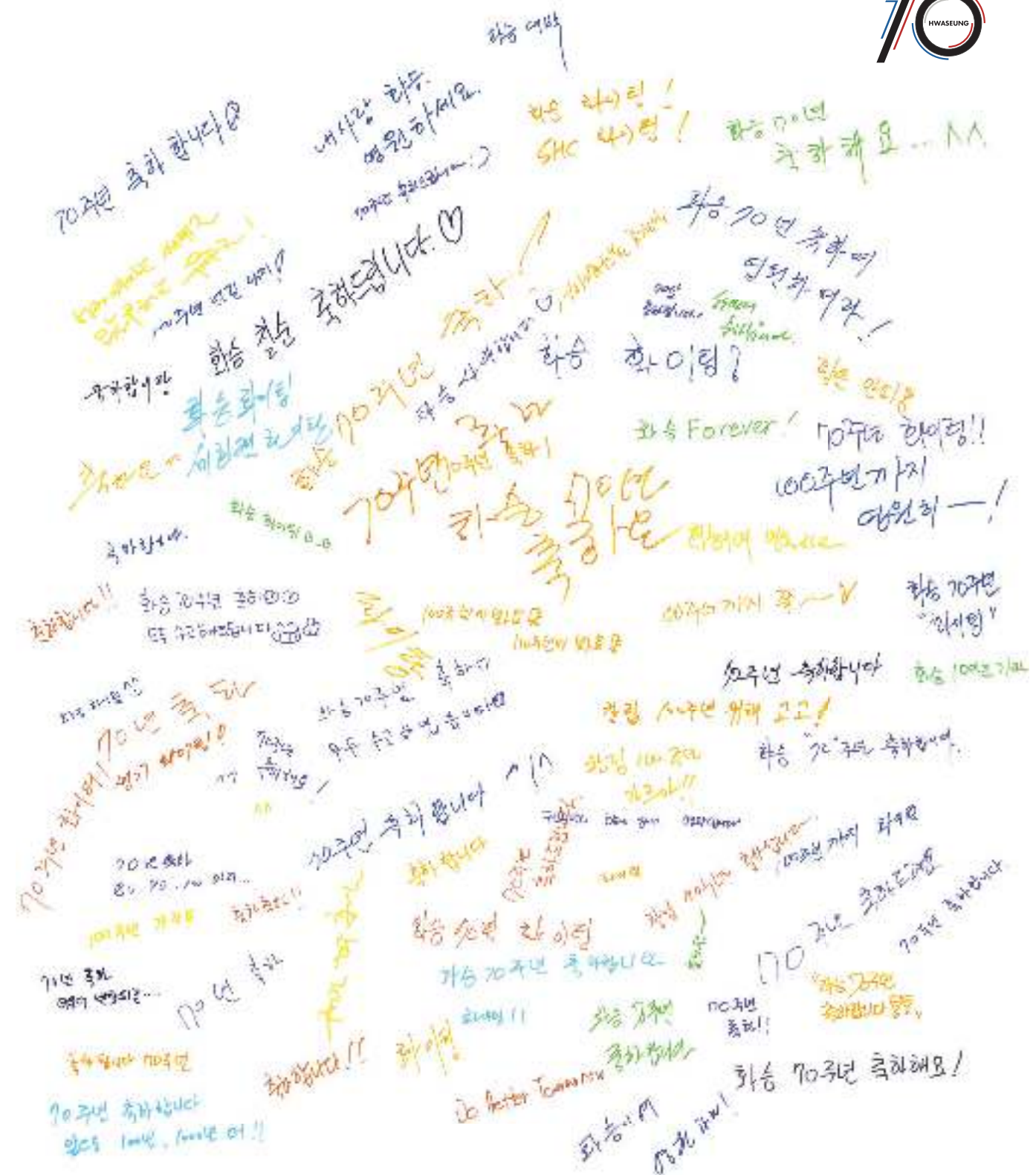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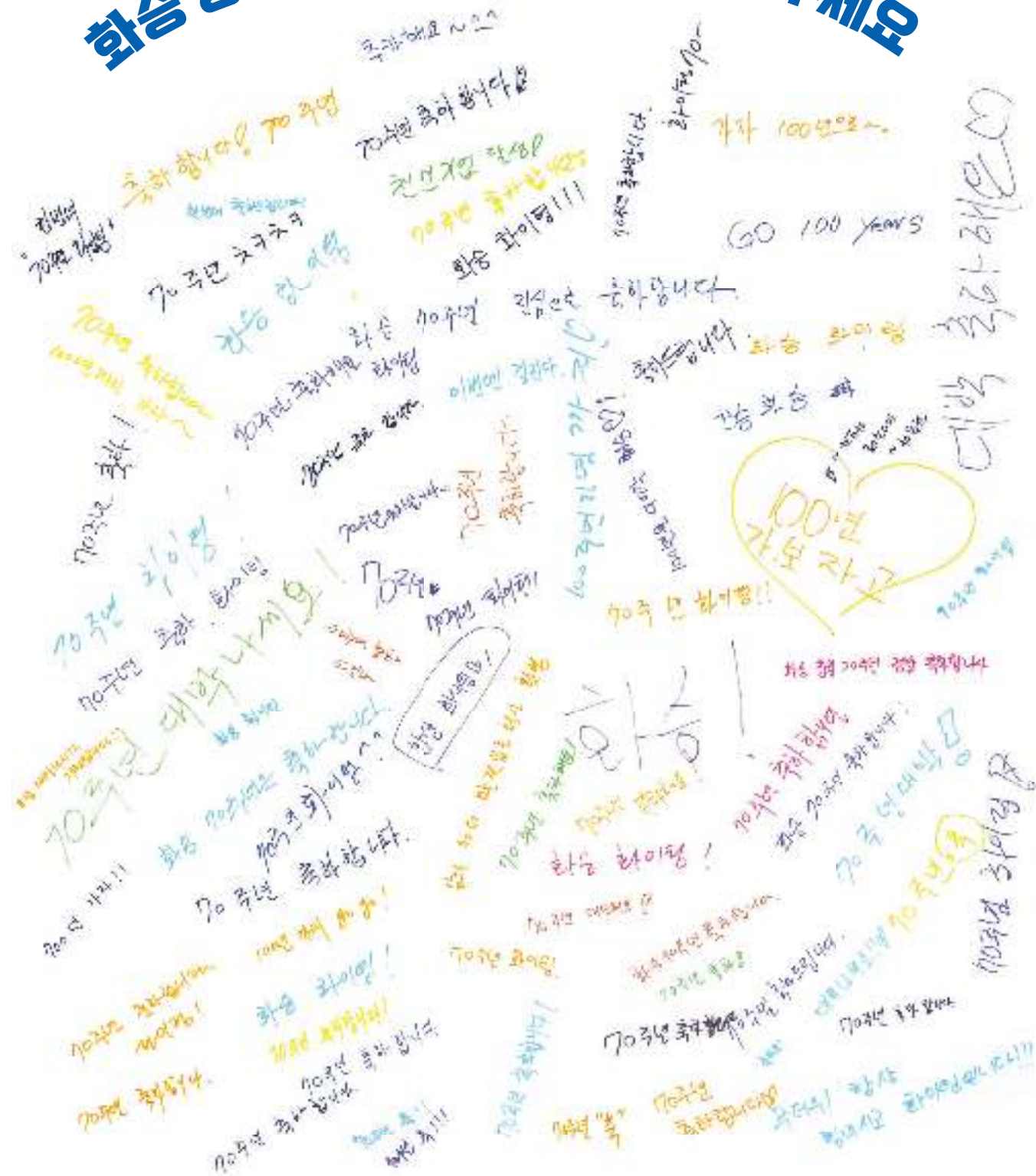
[illegible]

파버카스텔 연필회사, 오래된 와이너리를 보유한 안티노리, 약국에서 시작해 제약사가 된 머크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각각 262년, 700년, 355년의 업력으로 분야별 세계 최고, 최장을 자랑하는 기업이라는 것이다.
 화승 70주년, 이제 시작일 뿐이다. 100년을 향한 시작에 화승인들의 열렬한 축하와 애정 어린 응원 메시지가 더해졌다.
 이 뜨거운 기세대로, 가자~ 승승장구 화승 100년으로!

[illegible]



화승 창립 70주년을 함께 축하해 주세요



*본 롤링 페이퍼는 화승 양산법인 사우들의 참여로 이루어졌습니다.

작은 바자회에서 큰마음을 나누다

제2회 베트남 화승비나 바자회 현장 속으로

몹시도 무더웠던 지난 6월, 화승비나에서는 직원들을 위한 작은 바자회를 개최했다. 제1회 바자회를 연지 거의 9년 만에 제2회 바자회 행사를 펼친 것이다. 바자회를 열기 전 한 달 동안, 한국직원들의 기부를 통해 약 800점의 물품을 모을 수 있었다. 첫 번째 바자회를 열어본 유경험자들의 조언에 따라 레이아웃, 물품 분류, 진열, 마트 상품권을 뽑을 수 있는 작은 이벤트까지, 작지만 알차게 화승비나 프레쉬 보드들(부장급 이하 직원 통칭)이 모두 머리를 맞대고 준비했다.

행사 당일이 되었다. 작업자들의 일과를 마치는 종이 울리기 10분 전, 하늘에서는 장대비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다행히 현지인 식당에서 바자회를 펼쳐 비를 피할 수는 있었지만 '다들 쏟아지는 장대비에 작업자들이 서둘러서 집에 가버리면 어쩌나'하는 걱정이 앞섰다. 드디어 일과가 종료되고 작업자들의 퇴근이 시작되었다. 그런데 어찌 된 영문인지 작업자들이 바자회 장소를 지나치기만 하고, 도통 발을 들이지 않는 것이었다.



BAZAAR



‘날씨도 도와주지 않고, 바자 행사도 이렇게 망하는 건가?’ 마음속으로 한걱정하고 있던 찰나, 한국직원들이 적극적으로 호객 행위에 나섰다. 마지막해 한 분, 두 분 들어와 구경하더니, 10분이 지나자 어느덧 수십 명이 몰려와 물건들을 살펴보고 구매하는 풍경이 펼쳐졌다. 나중에 이유를 들어보니, 행사를 시작하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했단다. 그래서 늦게 참여하게 됐다.

많은 이들이 행사장에 들어와 옷과 생활용품을 들여다보며, 상당한 양의 물품을 구매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계산대에 있었던 나 역시, “물건이 괜찮다”, “가격이 저렴하다”라는 얘기에 뿌듯하기까지 했다. 바자회 한편에서는 물건을 구매한 이들을 위해 Coop 마트 상품권을 걸고, 럭키드로우를 진행했다. 50만 동(한화 약 3만 원) 상품권에 당첨될 때마다 이곳저곳에서 기쁨의 탄성이 들려왔다.

폭풍 같았던 바자회가 1시간여 만에 마무리되었고, 약 2천만 동의 수익을 얻을 수 있었다. 해당 수익금은 시니어 직원들이 기부금을 보태, 형편이 좋지 않은 10명의 작업자들에게 전달되었다. 또한 남은 바자회 기부 물품은 화승비나에서 주기적으로 도움을 주고 있는 고아원에 전달되었다. 십시일반의 작은 바자회였지만 큰마음을 나누는 값진 시간이었다.

바자회 준비과정이 쉽지는 않았다. 하지만 작업자들이 같이 즐기고, 도움이 되었다는 것에 큰 보람을 느꼈던 행사였다. 프레쉬 보드들 역시 어려움도 있었지만, 행사를 주도하면서 서로의 단합력을 한층 업그레이드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리라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드문드문 일회성 바자회가 아닌, 주기적으로 개최해 작업자들에게 힘이 되는 행사로 발전시켰으면 하는 소망을 가져본다. **70**



화승 70주년 기념 Fun-Fun 이벤트

창립 70년을 맞은 화승, 연중 전 임직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재밌고 다양한 이벤트를 실시 중이다. 지난 6~8월, 경남 양산 소재의 화승알앤에이, 화승코퍼레이션, 화승티엔드씨 등에서는 릴레이 경품 추첨을 비롯해 현지호 총괄 부회장이 쓰는 커피차 행사가 있었다. 백문이 불여일견, 웃음꽃 만발한 화승인들을 만날 수 있었던 Fun-Fun 이벤트 속으로 들어가 본다.



줄을 서시오!
시원한 아-아와 라떼 있어요,
아이스티도 있습니다~!

더운 날씨의 연속인데,
커피차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직원분들이 좋아하실 거 같아요.



Event 1

<현지호 부회장이 쓴다> 화승 커피차 행사

지난 6월 1차에 이어 8월 16일 2차로 진행된 <현지호 부회장이 쓴다> 커피차 이벤트. 경남 양산공장 소비조합 앞에서 진행되었다. 움직이는 카페, 커피차에는 “새로운 시작과 도전을 여러분과 함께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라는 현수막이 걸리고, 점심을 마치고 나온 화승 사우들에게 시원하고 달달한 커피 음료가 제공되었다(야간 근무자들을 위해 별도의 캔 커피 마련). 핫한 여름 한낮을 녹일 쿨한 음료에 화승인들의 표정마저 더 없이 시원해 보인다. 현지호 부회장이 쓰는 화승 커피차, 여기서 끝이 아니다. 오는 10월, 3차 행사를 위해 시동을 걸고 있다.

이렇게 챙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마시겠습니다~ 부회장님!



저는 바닐라라떼 마시는데요,
스타벅스보다 맛있습니다.
하하하~!



부회장님이 쓰시니까
더 맛있네요.
고맙습니다~
종종 부탁드립니다!

FUN-FUN EVENT

와~ 찍어서
인스타그램에 올려야겠네요!



Event 2

<함께하는 화승 창립 70주년> 경품 뽑기

화승 창립 70주년의 기쁨을 전 임직원들과 함께 누리고 나누기 위한 릴레이 경품 추첨이 진행되었다. 지난 7월 화승티엔드씨를 시작으로 9월, 그리고 11월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유쾌한 하루를 위해 출근길에 실시된 이벤트로 '추억의 뽑기' 판에 숨겨진 상품을 뽑으면 된다. 똑같이 주어진 한 번의 기회, 뽑는 자에게 주어질 경품으로는 1등 SK주유권(2명), 2등 이천쌀 10kg(5명), 3등 스타벅스 1만원 상품권(10명), 4등 신세계 5천원 상품권(20명), 5등 광에는 미니 추파칩스다. 광에도 막대사탕을 받을 수 있는, 웃음 가득한 추첨 현장이었다. 70

오늘은 내가 임금님?
이천쌀 당첨됐어요. 오늘 저녁은 수라상?



FUN-FUN
EVENT



가만-
나는 뭘 뽑은 거야?



화승 70주년 축하-
축하합니다-.
저는 커피 뽑았어요.
잘 마실게요!

헤헤~ 광 아닌 게 어디예요.
오랜만에 백화점 나들이 가야겠네요.

아- 이거
광~ 인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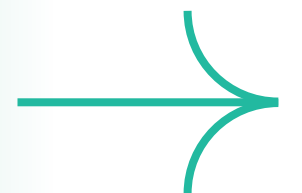
화승, 파이팅~!
저는 광 아니구요,
4등이랍니다.



ACTING

30 — 31

모든 기업이 지속가능성을
외치고 있습니다.
모두 실현 가능할까요?
화승은 공허한 메아리가
되지 않도록 확고하게
채비하고 있습니다.
제조기반에서 ‘탄성체 전문
테크기업, 화승’이라는 비전으로,
쉽지 않지만 못할 바 없습니다.
70년 저력이 있으니까요.



경동제이드, 경동리인뷰, 경동메르빌. 이 좋은 아파트를 짓는 분이 대체 누굴까, 늘 궁금했다. 분양하는 아파트마다 완판 신화를 이뤄내는 경동건설이라는 회사의 수장, 김재진 회장은 대체 어떤 분일까. 만나 뵈 수 있는 기회를, 아름다운 동행으로 긴 인연을 이어온 화승 현승훈 회장을 통해 얻게 되었다. 경동건설 50년, 화승 70년, 오랜 세월 서로를 위하여 함께 지어온 우정의 집에 같이 가보자.

오롯이 걸어온 경동건설 50년,

김재진 회장의 집에 대한 집념

“나는 집 짓는 사람이야,
집 말고는 몰라.”

부산공고에서 건축을 배워 맨몸으로 오직 집만 지으며 살아왔다. 그 어려웠던 시절,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작은 건축 회사에 입사해 야간대학을 다녔다. 그 시절엔 좋은 회사라는 게 월급 제때 나오는 회사였다. 건설 회사 다니다, 서른 살이 되던 해 여기저기 그를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했다. “김군을 데려다 쓰세요”라는 사장님의 말씀에, 소위 그를 데려다 쓴 사람들의 “일 잘한다”는 입소문을 통해 본격적으로 건설 일을 하게 되었다. 그렇게 시작하게 된 경동 건설이 올해로 창업 50년을 맞았다. ‘사장 김재진’이라는 이라고 찍힌 명함이 아닌 ‘기사 김재진’이라는 이름의 명함으로 그는 오직 집과 건설, 건축으로만 자신을 보여주고 싶었다. 사장이라는 간판보다 엔지니어라는 완전체로 경동건설을 이끌어야 했다.





**“그렇게 화승을 만난 거야.
화승이 경동건설의 일등공신이지!”**

부산은 합판, 봉제, 신발 산업으로 일으켜 세워진 도시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 신발의 중심에 화승이 있었고, 또한 화승이 부산의 산업을 이끌어 왔다. 화승과의 인연은 그가 39살이었던 해였다. 풍영화성(화승인더스트리 前身)의 이상표 전무가 처음 그를 찾아와 건축을 의뢰했다. 당시 부산 사상에 있던 풍영화성의 신발 공장에 나이키 오더 수주로 인해 증설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의뢰한 그 날로부터 75일 안에 증축을 끝내야 하는 상황. 아무리 생각해도 말도 안 되는 불가능한 일이었다. 고민할 시간을 달라고 했음에도 계속 풍영화성에서 연락이 왔다. 다음날 그는 생각을 정리해 풍영화성으로 향했다. 당시 풍영화성의 이성우 대표를 만난 그는 이 대표와 직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공법에 대한 파격적인 변경을 제안했다.

말로 설명하기 전에 먼저 물이 가득 담긴 컵에 클립을 넣어 떨어뜨렸다. 그 자리의 모든 사람이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 눈이 휘둥그레졌다. 물속에 가라앉는 클립을 보여주며 그가 설명하기를, 영도다리의 그 무거운 배가 물 위에 떠 있는 것은 부력 때문이니 이 건물 역시 아래 복잡한 기초공사를 하지 말고 땅 위에 띄워보자. 충분히 가능한 공법이며 증축 일정을 맞출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마침 풍영화성 이상표 전무의 직전 근무 회사가 조선(造船) 공사였던 것. 그 자리에서 무릎을 딱 치며 공법에 대한 이해가 이뤄졌고 경동건설과 풍영화성의 첫 번째 인연이 시작되었다.

75일 안에 끝내야 했던 증축은 69일 만에 완료되었고, 나이키 생산을 가능하게 했던 일화로 남았다. 그때로부터 16년간 화승의 건설 공사를 50회 진행한 경동건설. 신뢰가 얼마나 큰 나비효과를 불러오는지를 확연히 알 수 있는 사례다. 김재진 회장, 그는 회고했다. 그래서 화승은 오늘날 경동건설의 첫 단추이자, 일등공신이라고. 당시 경동건설은 화승의 영선반(지금의 시설관리팀)과도 같았으며 가족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고.

첫 번째 인연이 닿았던 그때에도 현승훈 회장을 뵈 수 없었다는 김 회장. 1년이 지난 후 화승의 성하정 부회장이 현 회장에게 인사를 하게 해 주었고 그걸 시작으로 오랜 인연을 이어올 수 있었다고. 어느 날 출근을 하는데 화승의 당감동 신발 공장이 불이 났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다는 그는, 그 길로 당감동 화재 현장으로 달려갔다. 불이 나서 황급히 달려간 건데, “왜 이렇게 빨리 왔냐. 일감이 생길 거 같아 왔냐”는 코카콜라 회장의 농담에 화승에 대한 걱정으로 한걸음에 달려왔다는 김재진 회장, 화승은 그에게 또 하나의 가족이기에 가능했던 일이다.



경동건설이 시공한 부전교회 글로벌 비전센터(위)와 온천천 경동 라인 타워(아래)

**“화승은 새로운 변화에 잘 적응하는
트랜스포머 같은 기업이야.”**

화승이라는 회사는 변화에 적응해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내는 동력이 상당한 기업이라는 김 회장. 화승은 국내에서 신발이 어렵다고 할 때 공장을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해외로 옮겨 신발 사업의 새로운 가능성을 몸소 보여주었다고 회고한다. 사회적 변화, 즉 사이클에 적응하지 못해 도태한 기업을 무수하게 봤지만, 화승은 그 반대로 새로운 길을 개척해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가고 있다고. 신발에서 자동차부품까지 사업의 변화에 능한 화승은 4만여 명의 직원을 고용해 식구라는 이름으로 그들과 함께하는, 세계적으로도 보기 드문 기업이라고 경외감을 표한다. 기업의 책무를 그 어느 기업보다도 성실히 정성껏 수행해 가고 있는 트랜스포머 같은 기업 화승을, 그 중심의 현승훈 회장을 존경한다고.

그에게 화승 현승훈 회장은 한 길을 함께 걸어온 따뜻한 가족이자 행선(行禪)을 이어가는 생불이며 인연의 순리, 정의의 순연을 만들어가는 존경의 대상이다. 늘 진심인 현 회장에게 전하고 싶은 김 회장의 진심이라고. 그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동시대에 같은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영광이란단다.





시대의 건축을 리드하는 예술적 가치 창조 기업, 경동건설

50년 한결같은 길을 걸어온 경동건설의 래퍼러스는 그 어느 것 하나 허투루 이뤄진 것이 없다. 아파트를 비롯해 부산 크라운 하버호텔, 아스티 호텔, 동부산 이케아, 부산대, 동아대 등 병원 내의 건축을 비롯한 활발한 택지개발, 토건, 토목 사업까지 건축, 건설의 그 어떤 현장에서도 만날 수 있는 공간을 채우는 예술적 가치 창조 기업, 경동건설. 보여주기보다 살기 좋은 공간을 위한 경동건설의 진심, 50년 경동건설이 사랑받는 가장 큰 이유이다. 이런 경동건설의 길을 김재진 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눌 수 있어 고마운 시간이다. 현 회장님께 또한 고마운 순간이다.

외부 사람들이 교회를 하도 많이 지어 기독교 신자인 줄 안다는데 현 회장과 같은 불교 신자라는 김 회장. '범어사 김장로'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란다. 현 회장의 불심을 감히 따라갈 수 없다고. 경동건설 사명(社名)의 유래가 궁금해 물었다. 경동건설의 경동은 경상남도 동래군이라는 지명의 앞 글자를 따 붙여 만든 것이라네. 특별히 뛰어난 사람이 아니라 그렇게 깊은 의미를 담지는 못했다는 김 회장의 한마디, 이게 겸손이고 또한 배워야 할 덕목이다.

* 경동건설 50주년 사사 발간 기념 축사를 통해 김재진 회장에 대한 현승훈 회장의 속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경동건설(www.kyungdong.com)

부산광역시 연제구 황령산로 599(연산동) / 051-865-1010

40년의 인연, 50년의 경동건설 김재진이라는 이름의, 건설의 역사를 응원합니다

경동건설 50th
사사에 게재된
현승훈 회장의
발간기념 축사

62년간 묵묵히 건축이라는 한 분야를 걸어온 김재진 회장은 저와 40년이 넘도록 지근거리에서 늘 동고동락한 벗과 같은 분입니다. 동갑내기 친구이면서 기업을 경영하는 경영인으로서 늘 서로 의지하며 작고 큰 소식들을 전해왔지요. 1973년 문을 열어 50년이라는 업력을 이어온 경동건설은 대한민국 건설의 산 역사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중심엔 늘 묵묵히 한 길을 걸어온 김재진 회장이 계십니다.

김재진이라는 이름도, 경동이라는 이름도 모두가 건설의 역사를 대변하는 하나의 브랜드라고 저는 늘 생각해 왔습니다. 김재진 회장과 함께하며 오래전 화승의 서울, 아산을 비롯해 부산 감전동, 연산동 사옥 시공을 의뢰했을 당시, 기공부터 준공까지 모든 공정에 있어 하나 빠짐없이 스스로 챙기는 모습을 보며 감탄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감탄은 신뢰를 만들었고, 그 신뢰는 끈끈한 인연으로 오늘도 변함없이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탄탄한 실적이 증명해주듯 해마다 성장을 견인해 오고 있는 경동건설 김재진 회장은 늘 시대 덕분이라며 스스로 자신을 낮추는 겸손의 미덕 또한 매력적인 분입니다. 경영인이라는 타이틀보다 전문인이라는 타이틀을 더 좋아하는 김 회장은 책상에 앉아있기보다 필드에서 더 돋보이는 실무형, 현장형 전문가입니다. 궁금한 것이 있으면 바로 연락해 확인하고 잘못된 것은 그때그때 바로 잡아 제대로 해야 하는 정확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고여 있는 물이 아니라 늘 흐르는 물로 새롭고 또 새로운 길을 개척해 온 김재진 회장입니다. 지방 건설사로 시작해 이제는 어엿한 중견 건설사로 여전히 그는 머물러 있지 않고 늘 새로운 혁신으로 더 새로운 도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보여주기 위한 퍼포먼스보다는 진심을 담은 공간을 만들고 그 공간 속에 숨 쉬는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경동건설은 50년 한결같이 새로움에 새로움을 더하고 낯선 도전을 통해 융합의 시너지를 만들어 왔습니다. 레저나 서비스 분야 등 다양한 융복합적인 미래 가치를 건설에 도입해 50년을 넘어 새로운

100년 기업을 향한 초석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적인 건설 회사로 새로운 도약을 이어갈 수 있도록 늘 김 회장의 길을 더 큰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좀처럼 부탁을 하지 않는 김 회장이 책을 내는데 글을 써달라는 부탁을 해왔습니다. 그와 함께한 40여 년의 길을 돌아보고 앞으로 그와 걸어갈 길을 생각했습니다. 걸어온 길보다 더 오래도록 그와 함께 걸어가고 싶지만 시간이 허락해주지 않겠지요. 하지만 지금껏 걸어온 길보다 더 오랜 호흡으로 그와의 소중한 시간을 함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길엔 늘 디딤돌 혹은 걸림돌이 있습니다. 김 회장은 누구에게나 늘 디딤돌이 되어주는 사람입니다. 어두운 곳을 밝히고 힘든 사람들을 살피며 자신을 딛고 일어서 그 사람들이 더 나은 세상을 향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마음이 그대로 경동건설에 깃들어 있습니다. 그런 그의 인생이, 경동의 역사가 고스란히 기록된 이 책은 50년의 긴 세월을 그대로 녹여 만든 책임입니다.

경동건설 50년사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김재진이라는 한 사람의, 경동이라는 한 기업의 선한 영향력이 나비효과로 세상을 환히 비출 수 있는 값진 스토리로 널리 퍼졌으면 합니다. 인연의 소중함을 인생의 과제로 삼는 그의 따뜻함이 부디 사람들 가슴 속에 남겨지기를 기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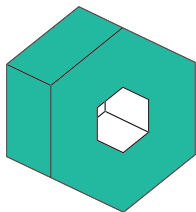
화승도 올해 70주년이 되었습니다. 쉽지 않은 길이었고 그 길 중에 많은 시간을 김재진 회장과 함께해 더 뜻깊습니다. 70주년을 맞은 화승과 50주년 경동건설의 행복한 동행을 함께하겠습니다. 쉽지 않은 않았던 그의 길에 잔잔한 박수갈채를 부탁드립니다. 70

화승 회장 현승훈

화승, 제조기반에서

기술 중심의 테크기업으로

희망의 미래를 논하고 청사진을 그릴 수 있었던 시대에 제동이 걸리고 있다. 환경과 시장의 변화, 노동인구의 감소, 투자 부담의 증가 등으로 지속가능성의 위기에 선 기업들, 화승 또한 예외일 수 없다. 기존 사업을 토대로 자구책 및 방향성 모색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화승코퍼레이션 프로덕트 사업부 구성원들을 만났다. 제조기반에서 기술 중심의 테크기업으로, 화승 궁극의 비전을 향한 이들의 노력에 주목해보자.



테크기업으로의 전환, 기술적 우위를 발전시켜 나갈 인재가 가장 중요

홍승표 총괄 본부장
프로덕트 사업부

프로덕트 사업부 총괄본부장을 맡고 있다. 어떠한
사업부이며 어떤 업무들을 수행하는가?

우리 사업부는 토목, 항만, 건설, 석탄화력발전소, 제철소, 조선소 등 모든 산업의 근간을 이루는 기간 산업에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산업용 고무 제품을 취급하며 국내외 다양한 고객들과 함께하고 있다. 특히 컨베이어벨트와 호스·시트(고무판), 펜더(방충재) 등은 국내 최고 브랜드로 인정받고 있으며, 글로벌 시장에는 차별화된 소재의 기술력과 품질관리로 유수의 기업들에 제품을 공급하고 있다. 코퍼레이션 합병 이후에는 신규사업의 발굴 및 개발로 EF(Electrification) 사업을 신설, 재생에너지 저장 관련 부품사업과 반도체 부품, 해상풍력에 들어가는 대형 Sealing 제품까지 다양한 제품개발 및 공급으로 사업다각화 중이다. 이러한 사업부의 본부장으로서 영업·구매·품질·신사업개발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최근 인더스트리얼 사업부에서 프로덕트 사업부로 명칭이 변경된 것은 사업부의 역할에 대해 더 큰 목표를 준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프로덕트 사업부만의 매력이나 특징점, 혹은 업무 일선에
서 느낀 성취감이라면?

긴장감, 긴박감이라 표현하고 싶다. 사업의 특성상 확실한 물량을 보장받거나, 예상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오로지 영업과 기술지원, 가격 등이 관건이다. 그 여부를 그때그때 확인할 수 있는 특징이 강하다 보니 긴장과 긴박감의 연속이다. 수주 여부에 따라 희비가 엇갈리는 매일의 현실이, 다른 사업과의 차이점이자 매력이지 않을까. 대형 입찰 물량의 경우, 당 사업부로 낙찰되었을 때 모든 직원이 환호하는 그 순간, 최고의 성취감과 보람을 느낀다.

시장의 위기와 변화를 제일 먼저 체감하는 점점에 프로덕트
사업부가 있다. 사업부의 당면 과제는 무엇이며 향후 목
표하는 바는 무엇인가?

앞서 말했지만 우선 과제는 사업의 다각화다. 기존 사업들도 중요하고 잘 지켜내야 하지만, 좀 더 확장된 영역으로 연관 사업의 모색 및 탄성체 관련한 새로운 사업군을 찾아야 한다. 직접 제조하지 않는 사업방식으로 영역을 확장하는 것이 그 하나다. 국내 소싱을 글로벌 소싱 체제로 전환하기 위해 해외 업체들과 제휴 및 연대하고 있다. 이런 노력으로 내실 있는 사업본부가 될 것이라 확신한다. 또 하나의 목표는 향후 10년 이상 고수익과 매출로 끌고 갈 수 있는 신사업(먹거리)을 발굴하고 찾는 것이다. 새롭게 추진하고 있는 아이템들이 있지만 이를 사업화하기 위한 과정은 쉽지 않다 성공할 수 있는 사업으로 전개 및 발굴, 개발하는 것이 사업부의 최대 과제다.

테크기업을 향한 화승의 중심에 프로덕트 사업부가 있다. 경쟁력 및 강화할
점을 꼽아본다면?

테크기업으로의 전환, 얼마 전 임원 및 직책자 워크숍에서 핵심적으로 강조한 부분이다. 세계적인 기업들과 같이 화승은 우수한 R&D센터 및 개발, 제조 없이 내재된 기술력으로 제품구매 및 마케팅을 하고 있으며 글로벌 Multi Supplier Chain을 구성하고 있다. 지금 더 발전시키면 세계 어디서나 우리의 제품을 구매하고 판매할 수 있는 회사가 될 수 있다. 그 핵심 영역이 화승의 경쟁력이다. 이를 더 보완하고 강화하기 위해서는 관리 부분에 좀 더 고도화 작업이 필요하며 소싱처 구성을 다국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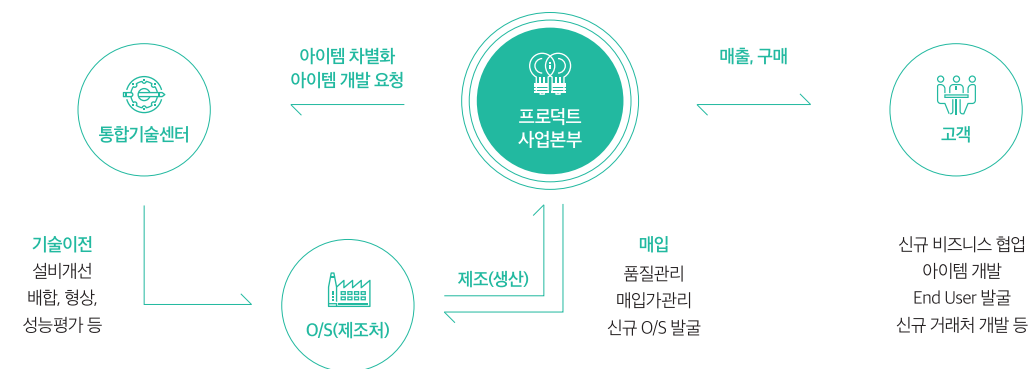
‘탄성체 전문 테크기업’에 대한 개인적 생각을 들려준다면?

지난 워크숍을 통해 테크기업으로서의 윤곽을 잡아가고 있다는 걸 느꼈다. 개인적인 생각을 묻는다면 모든 걸 차치하고 결국 기술적 우위를 학습하고 발전시켜 나갈, 제일 중요한 요소는 인재라는 것이다. 그룹 70주년을 맞아 부회장님 말씀대로 우리는 환경의 변화에 따라 지속가능성의 위기에 처해 있다. 탄성체 기업에서 탄성체 전문 테크기업으로서의 전환 및 변화는 매우 중요한 시기에 획기적인 발생의 전환을 요구하는 화두와 같다.

이번 테마가 ‘진심(眞心)’이다. 어떤 생각과 느낌이 떠오르며 화승인으로서
어떤 진심을 전하고 싶은가?

화승의 역사가 느껴진다. 한국의 기업사를 돌아보면 큰 기업이라고 반드시 생존하고 작고 영세하다고 반드시 사라지지는 않았다. 화승이 지속 가능한 건 진심이 밑바탕에 있기 때문이다. 고객과의 진심, 임직원 상호 간의 진심, 사업에 임하는 진심. 인화(人和)를 바탕으로 한 진심이 지금의 화승 70년을 만들었다. 그리고 화승 임직원들의 땀과 열정의 결과다. 진심으로 축하한다. 화승인 모두의 수고에 대해서도 진심 어린 칭찬과 격려를 보낸다.

‘탄성체 전문 테크기업, 화승’을 향한 프로덕트 사업부의 전략적 포지셔닝





‘다양한 경험과 기술 보유’라는 강점에 화승만의 차별성을 더해야

강보성 상무

프로덕트 사업부 영업 담당

프로덕트 사업부 영업을 담당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가?

1995년 화승알앤에이 기술연구소 연구기획팀 소속으로 입사했다. 2013년 화승소재 TPE 개발팀을 거쳐 2022년부터 화승소재 영업본부장 및 화승코퍼레이션 프로덕트 사업부에서 영업 담당 직책을 맡고 있다. 주요 업무로는 산업용 호스 및 컨베이어벨트, 조선해양(펜더) 제품에 대한 국내외 영업(제품 판매) 및 신규 거래선 발굴이다. 국내 위주의 아웃소싱 업체에서 해외 아웃소싱 업체 발굴도 추가 진행되고 있다. 소재사업 CMB 및 TPE 국내외 영업도 겸직하고 있다.

아무리 탁월한 제품도 영업하지 못하면 사장되고 만다. ‘비즈니스의 꽃’이라는 영업, 어떤 매력이 있는가?

결과에 대한 성취감이다. 오랫동안 한 고객사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거래 관계를 유지하며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는 비즈니스 관계도 좋지만, 영업은 개척과 도전이라는 매력을 품고 있다. 새로운 미션과 매년 달라지는 목표 실현을 위해 팀원들과 고민하고 그 결과가 좋은 방향으로 마무리되었을 때 영업, 그리고 일에 대한 만족감을 느낀다.

화승 제품 영업을 위해 가장 주안점(기술력, 소재, 가격경쟁력 등)을 두는 부분이라면?

컨베이어벨트의 경우는 300억 매출액 중 50~55%가 국내 Big 제철소 2개사 물량으로 달성되는데 1년 단위로 수주 물량이 변경된다. 일정한 수주 볼륨 유지 및 영업 이익률 개선을 위해 고객사에 당사 기술력 및 소재 개발 부분에 대한 어필이 중요하다. 호스·시트 영업의 경우, COVID 기간 중 주변 환경이 많이 변했다. 원자재 상승 및 수요와 공급의 밸런스 붕괴 등으로 고객사에게 원재료 동향에 대한 많은 정보를 제공, 당사 제품의 수급 안정성 및 공급가에 대한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 펜더의 경우는 설계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프로젝트별 사전 설계 반영 및 기술 제안을 통해 경쟁사에 대한 진입을 막고, 보다 나은 공급가를 유지하고 있다.

갈수록 변화가 필요하고 위기는 가중되는 시대다. 영업 담당으로서 요즘의 시장 추이는 어떠한가?

공급가 인하에 대한 압박, 시장 변동성의 확대 등 변수로 가득한 무한경쟁의 시대다. 영업의 경우, 그 어느 때보다 시장에 대한 신속하고 많은 정보 입수가 필요하다. 고객사는 항상 새로운 것을 요구한다. 누가 가장 경쟁력 있는 방안을 제시하느냐에 따라 수주의 규모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또한 같은 제품이라도 그 제품에 대한 강점을 어떻게 잘 구현하고 포장하느냐에 따라 시장 인지도와 지배력이 달라진다는 게 요즘 시장 환경이다.

탄성체 전문 테크기업으로의 전환, 화승만의 강점이나 보완할 점으로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

제조기반에 대한 다양한 경험과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는 게 강점이라면 보완하고 강화해야 할 점은 차별성이다. 앞서 말했지만 많은 경쟁사 속 동일한 제품이라도 고객사에 기술경쟁력 혹은 마케팅 면에서 차별성 있게 어필한다면 그 결과는 달라진다. 차별성은 단순한 변화가 아닌 혁신에서 출발한다. 기존에 고집해온 사업 전개 및 생산 방법, 고객사에 대한 접근법 등 다양한 분야에 차별화된 생각, 유연한 사고가 필요하다.

화승 70주년이다. 앞으로의 화승에 대한 바람 혹은 진심을 표현해준다면?

70년 통령하기까지 많은 이들의 노력과 참여가 있었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 100년 기업 화승이 되길 바란다. 100년 기업의 조건은 내부 혁신과 외부 변화에 대한 적응이 필수적이다. 회사는 이익 추구의 집단이지만 또 하나의 작은 유기적 결합체이다. 특정한 한 사람의 능력으로 유지될 수 없다. 구성원 모두가 지혜를 모아야 한다. 자유롭게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이를 콜라보할 수 있어야 한다. 신발에서 출발한 사업이 자동차부품, 방산 영역으로까지 확장되었듯 앞으로도 신사업 발굴, 다양한 사업군을 통해 100년 화승이 되길 진심으로 바란다.

‘테크기업’이라는 비전은 화승인을 나아가게 하는 구심점

윤순환 상무

통합기술본부 제품연구센터 설계 실장



현재 설계개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화승 입사 이후 맡은 업무들은 무엇인가?

프로덕트 사업 부문의 다양한 아이템인 컨베이어벨트, 산업용 호스·시트 및 항만용 펜더 등에 대한 설계업무와 화승 제품의 차별화, 기술 Level up 및 신규 제품개발 등의 업무도 담당하고 있다. 1999년 입사 이후 설계개발 부문 업무에 집중해왔다. 그동안 선배들이 이루어 놓은 ‘국내 최고의 산업용 고무 제품 회사’라는 자부심으로 20년 이상 근무할 수 있었다. 이제는 후배들에게 내가 느낀 이 자부심을 물려주기 위해 더 열심히 노력할 때라고 생각한다.

프로덕트 사업부 설계 책임자로서 최근 업무적 이슈 및 장단 기 목표는 무엇인가?

프로덕트 사업 부문은 많은 고객의 다양한 요구사항이 존재하므로 고객별 커스터마이징(Customizing)한 제품개발이 첫 번째다. 그리고 최근 기술 트렌드인 친환경 소재 제품화 및 IoT 융합 제품개발 등 고부가 신규 제품개발에도 집중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국내에 집중된 당사의 소싱처를 국내외로 다변화 중이다. 화승만의 글로벌 기술, 가격경쟁력으로 매출 증대 및 손익 개선에 기여하기 위해서다.

지속 가능한 화승을 위한 ‘탄성체 전문 테크기업’으로의 전 환, 어떻게 생각하는가?

현재와 같은 대변화의 시대에 ‘테크기업’이라는 새로운 비전은, 화승의 모든 구성원이 진취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구심점이 된다고 생각한다. 이제부터 테크기업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가다 보면 눈에 보이는 비전이 되지 않을까.

‘진심’하면 어떤 생각이 드는가. 개인적 혹은 화승인으로서 의 진심을 전해준다면?

진심은 포장하지 않아도 모두가 느낄 수 있다. 우리 화승인들 모두 겉포장보다는 내면이 진실하고 아름다운 사람이 되었으면 한다. 그리고 창립 70주년을 맞이한 화승은 ‘테크기업’이라는 새로운 비전을 품고 100년 이상 지속 가능한 기업이 되었으면 좋겠다.

압도적 기술력의 테크기업이라면, 화승은 영원히 지속 가능

김철희 팀장 호스·시트 영업팀

2010년 1월 1일 공채 15기로 입사한 김철희 팀장, 고무를 바탕으로 한 호스와 시트류 제품을 국내외 고객들에게 판매하고, 새로운 시장을 개발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생각지도 못한 해외영업 담당으로 입사해서 어려움이 많았어요. 첫해에 우연한 계기로 팀 내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면서 몰랐던 제 적성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실없는 소리를 자주 하는 편인데 잘 받아주는 동기, 선후배, 임원분들을 만나 힘든 시기를 잘 극복하며 달려온 것 같습니다.”

최근 기업 차원의 화두인 ‘테크기업 전환’에 대한 그의 생각을 물었다. “사람마다 다르게 생각하고 정의할 수 있겠지만 저는 가장 이상적인 테크기업으로 미국 군수기업들이 떠오릅니다. 두 세대는 앞서서 전투기 기술력으로 세계를 선도하고, 적정 수준의 전투기 기술력을 팔아서 돈을 버는 그런 기업들이죠. 화승이 그런 압도적인 기술력을 가진 테크기업이 된다면 영원히 지속되지 않을까요.”

진심이 느껴지는 말이다. ‘진심’하면 원동력이 떠오른다는 김철희 팀장, 자신은 부지런하지 못한 편이라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행동하고 몰두할 수 있단다. 그래서 진심은 자신을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이라며, 70주년 화승에 대한 상념도 풀어낸다. “올해 제가 만으로 40세입니다. 칠순 때 화승 100주년 기념 광고를 보며 몽클해지고 싶네요.”



브랜드 파워를 바탕으로 한 기술영업, 테크기업으로 가는 길

안성진 팀장 컨베이어벨트 영업팀

2010년 입사해 전공인 무역과 스페인어를 살려 중남미 해외영업 업무를 시작한 안성진 팀장, 김철희 팀장과는 공채 동기다. 중남미 지역 전문가를 꿈꾸기도 했으며 미주·일본·동남아로 거래선을 맡으면서 그 폭을 넓혀가고 있다.

“지난해부터는 국내외 벨트 영업을 관장하고 있어요. 업무로는 국내 대형 제철 및 발전소에 주요 자원(석탄, 광물)을 이송하는데 필요한 라인에 제품(컨베이어벨트)을 공급하고 유지·보수에 대한 기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영업팀장으로서 ‘탄성체 전문 테크기업’이라는 화승의 비전에 대해 어떤 생각을 품고 있을까. “우리 프로덕트 사업부 자체가 전신인 화승엑스월 시절부터 항상 ‘제조보다는 압도적인 브랜드 파워를 바탕으로 한 기술영업으로 세계를 누비자’는 비전을 가졌습니다. ‘GLOBAL RUBBER PROVIDER’, 그 꿈이 ‘테크기업’이라는 비전과 같은 결로 이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전사 차원의 지속적인 노력이 더해진다면 그 비전은 달성될 수 있다고 믿는 안성진 팀장, 그의 진심은 어떤 것일까.

화승 기업이념이 인화이듯, 화승인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할 때 진심으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 그 진실한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70주년 화승에 바라는 답변은 이러했다. “모든 직원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화승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70**



CEO와 함께하는 공감, 팀장들과 함께하는 소통

‘화승, 탄성체 전문 테크기업’을 향한 워크숍 개최



지구 환경의 위기, 산업 환경의 재편, 의식구조의 변화 등으로 지속 가능한 미래를 꿈꿨던 기업들에 걸림돌이 생겼다. 위기를 기회로 외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 화승 또한 냉철한 판단과 정확한 행동만이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맞이할 수 있다는 판단하에 CEO를 비롯한 임원들, 그리고 실무 현장의 팀장들이 모였다. 공감과 소통의 현장을 담아보았다.



현안을 통해 대안을 찾고자 한 화승 워크숍

지난 6월 16일, 화승 임원 워크숍(EXECUTIVE 이벤트-공감)이 부산 영도구에 위치한 복합문화공간 피아크에서 열렸다. 현지호 총괄부회장을 비롯해 허성룡 화승코퍼레이션 대표, 박동호 화승네트웍스 대표, 김형진 화승알앤에이 대표 등 화승 임원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펼쳐진 이번 워크숍은 '왜 테크기업으로 전환해야 하는가'라는 주제로 테크기업 전환을 위한 배경 설명 및 연구 발표, 집중 토론 순으로 진행되었다.

4시간 30분 넘게, 오후 시간을 꽉 채운 'EXECUTIVE 이벤트-공감' 워크숍은 급속한 기후 위기로 산업 환경은 물론 사람들 의식구조까지 변화하고 있는 시점에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인식 및 위기의식에서 비롯되었다. 지속가능성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 이번 워크숍은 현안을 통해 대안을 찾고자 하는 자리이기도 했다. 4개의 세션(왜 테크기업으로 전환해야 하는가, 우리의 테크기업 추진현황(통합기술센터, 프로덕트 사업부), 현대자동차 디지털 전환 사례 소개, 임원 토론회 아이디어 공유)으로 구성되었으며 토론이 가능할 수 있도록 5개 조로 편성되었다.



'테크기업, 화승'으로 나아가는 비전 공유

워크숍은 현지호 부회장의 "테크기업이 되기 위해 필요한 두 가지는 목적의식과 변화다"라는 요지의 기초연설로 시작되었다. 다음으로 테크기업으로 전환한 선진 글로벌 기업들의 사례가 소개되었으며, '테크기업 전환 필요성, 그리고 우리의 방향'에 대한 발표로 이어졌다. 혁신을 통해 화승의 방향성을 찾고 실현할 수 있는 사업 계획이 제시되었고, 통합기술센터와 최근 새롭게 부서 명칭을 바꾼 프로덕트 사업부(전 인더스트리얼 사업부)의 아이디어가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타당성 있는 자료와 대안들을 덧붙였다.

좀 더 활발한 의견 개진을 위한 토론 시간도 가졌다. 주제는 '탄성체 전문 테크 기업으로서 5~10년 후 우리의 모습'에 대한 것. 사업 정체성, 시장의 요구, 기술 경쟁력, 그리고 기회 측면에서 '탄성체 테크 전문기업, 화승'으로 접근 가능할까. 산업적으로, ESG 면에서, 그리고 인적자원(HR) 및 모빌리티(Mobility) 차원에서 구체화할 수 있는 방안들이 나왔다.

열띤 조별 토론 후 결과 발표와 질의응답이 있었으며 각 계열사 대표들의 총평으로 이날의 워크숍은 마무리되었다. 이후 7월 20일에는 실무 현장의 팀장들을 대상으로 한 워크숍이 이뤄졌다. 하나의 주제로 이어진 두 차례의 워크숍을 통해 화승 전 임직원들이 '탄성체 전문 테크기업'이라는 가시적 비전을 진심으로 공감하고 소통할 수 있게 되었다. 70





글 토로사 사진 이소연



부러우면 브라우터에서 만나자

여덟끼니, 베이커리
플래그십 스토어 오픈



“부러우면 지는 거다”라는 말을 입버릇처럼 하는 요즘이다. 비교와 견제의 대상에게서 열패감을 극복하고자 하는 희망고문 같은 말들, 그러나 하 수상한 시대에 굳이 그렇게까지야... 여기, 지지 않고 맛과 멋, 문화의 향기로 감성회로를 자극하는 아주 특별한 공간이 있다. 전문 푸드테크 기업, 여덟끼니의 베이커리 플래그십 스토어 ‘브라우터’이다.

F&B 전문 기업, 여덟끼니가 런칭한 브라우터

MZ세대 핫 플레이스로 주목받고 있는 성수 지역에 우윳빛 바탕에 연노랑을 두른 외관의 베이커리 카페가 들어섰다. 서울 독성역을 이용한다면 2번 출구를 나와 좌측으로 고개를 돌리면 깔끔한 입간판의 브라우터(BRAUTOR)를 만날 수 있다. 지난 7월 28일 가오픈 때부터 문전성시를 이루었다는 입소문 효과 때문일까, 점심시간이 지났는데도 4층짜리 통건물 안은 손님들로 만석이다.

브라우터는 베이커리 전문 브랜드로 프리미엄 식자재 중심의 ‘팜투 테이블(Farm to table)’을 기치로 한 F&B 기업, 여덟끼니(대표 정용한)가 런칭한 카페다. 독일어로 ‘Brot(빵)’과 ‘Autor(작가)’의 합성어로 빵과 공간을 동시에 떠올릴 수 있는 유일무이한 브랜드 이미지를 생각하며 만들어졌다. 전체 디렉팅을 맡은 위승준 CMO, 김다나 디자이너와 심혈을 기울였다는 김양희 P.L(Marketing Part Leader)이 런칭 스토리를 들려준다.



“우리에게 친숙한 식감으로 데일리로 즐길 수 있는 베이커리, 경험해보고 싶은 인테리어, 다양한 팝업이나 이벤트를 하나의 문화로 적용할 수 있는 공간 조성을 위해 고심했어요. 그렇게 독일 빵을 재해석하고 미드센추리 콘셉트로 내부를 꾸미고, 아티스트, 작가들과 다양하게 협업할 수 있는 콘텐츠에 대해서도 깊이 고민했고요. 힘들었지만 즐거운 작업이었습니다.”

의자, 테이블 조명, 창문, 콘센트 등 내부 소품 하나하나까지 꼼꼼하게 신경을 쏟은 결과는, 현재까지 잘 순항하고 있다는 말로 대신한다. 매일 만나는 먹음직스러운 빵과 커피를 통해 일상을 느낄 수 있고, 콘셉트가 있는 서재, 주방, 테라스 등의 공간에서는 브라우터만의 문화까지 엿볼 수 있게 한다.





**빵과 커피,
문화로 감성 회로를 자극하는 공간**

여덟끼니의 베이커리 전문 브랜드인 만큼 브라우터는 빵에 대해 진심이다. 당일 생산, 직접 제조를 원칙으로 한다. 숫자 8을 꼬아놓은 모양의 프레첼은 독일 빵이지만 브라우터는 우리에게 익숙한 식감을 반영해 데일리 (프레첼), 샌드위치, 디저트 3가지 라인업을 갖추고 있다. 건강하고 담백한 일상을 위한 데일리 프레첼을 비롯해 아보카도 에그, 애플 브리치즈, 대파 크림치즈, 바질 토마토, 호두 크림치즈 등 핫한 재료들로 속을 채운 샌드위치류, 특히 디저트는 기존 시나몬롤이나 슈톨렌, 쿠키 이외에 우리네 입맛을 살린 소빵소빵 소시지 바이트와 옥수수-어니언-떡볶이 프레첼 등이 더해졌다. 앞으로도 시즌별로 브라우터만의 아이디어를 더한 메뉴들을 선보일 예정이라고 한다.

빵과 공간에 대한 정체성을 담아낸

베이커리 카페

독일 타운하우스 같기도, 유럽 어느 소도시에서나 있을 법한 카페 같기도 한 브라우터, 주변 상점들과는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 밝은 색감의 건물은 이곳을 찾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일반 행인들의 시선까지도 사로잡아 자연스럽게 사진 찍는 모습을 포착할 수 있게 한다. 그렇다면 가상의 작가 브라우터의 취향을 담아낸 내부 공간은 어떨까.

1층은 '작가의 주방'이다. 독일에서 시작된 프레첼(Pretzel, 독어로 브레첼(Brezel))을 시그니처로 한 식사나 디저트용 빵들이 진열되어 있다. 신선하고 싱싱한 재료를 가득 채운 샌드위치와 각종 크림을 충전한 백과사전 모양의 페이지 빵 등으로 보는 즐거움까지 더해준다. 'Archive Bread and Book(빵과 책을 아카이빙하다)'라는 워딩처럼 책장 같은 선반에서 책을 꺼내듯 빵을 꺼내는 느낌이다. 빵을 고르고 커피나 음료 주문을 위해 줄을 서면 이곳 인테리어가 미드센추리 스타일임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해준다.

2층~4층은 고객들이 빵과 커피를 즐기며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공간. 2층은 '작가의 거실'로 누군가의 집필 공간을 통째로 옮겨놓은 듯하다. 그냥 지나칠 수 없는 포토존이기도 하다. 창문 한 칸으로는 브라우터의 캐릭터인 부엉이 모양의 스탬프를 찍고 색칠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되어 있다.

3층은 '작가의 서재'이다. 도서관 콘셉트임을 단박에 눈치챌 수 있는 스탠드가 테이블 위에서 빛을 발한다. 한 두 시간 공부나 작업에 집중할 수 있는 스터디카페 느낌이 물씬하다. 4층은 책꽂이 모양의 스테인드글라스가 인상적이며 폴딩도어를 열어놓은 루프톱 테라스에는 꽃과 식물들이 싱그럽게 에둘러 있다.



브라우터는 카페 본연의 공간뿐만 아니라 작가의 전시, 작가와의 만남, 독서 소모임, 강좌, 각종 클래스 등 일상과 예술을 넘나드는 독특하고 풍요로운 경험을 선사할 수 있는 공간으로 거듭나고자 한다. 현재 브라우터는 독서점 플래그십 스토어 오픈을 시작을 신세계 본점, 동대구 신세계, 강남 신세계 등으로 입점을 확정하고 있다.

색다른 빵과 향기 좋은 커피가 당길 때, 창 넓은 찻집에서 멍 때리고 싶을 때, 새로운 자극과 문화의 향기를 만끽하고 싶을 때, 그리고 뭔가에 대한 부러움이 극에 달할 때면 감성회로를 자극하는 아주 특별한 베이커리 카페, 브라우터에서 만나자. 빵과 커피, 공간이 주는 위안이 있는 곳, 당신은 지금 부럽지 않은, 부러울 게 없는 브라우터에 있다. **70**



브라우터(BRAUTOR)

서울시 성동구 왕십리로14길 28-21 지상 1~4층
0507-1362-1217 / 영업시간 08:00~20:00

EXCITING

한 기업이🏢 70년 건재할💪수 있는 건
변수와🌊 부침이 심한 대한민국
기업사🏢에서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 어려운 걸 화승이💙 해냈습니다.
화승 창립🎂 70주년🎂, 고무적이자
경축해야🎉 할 일입니다.😄
멈춤🛑 없이 진심💎으로 나아간다면
100년 화승📅, 이를 수👑 있습니다.

Don Quixote

죽기 전에 꼭 한번,
국립발레단 공연!

발레 돈키호테와 함께한
화승 70주년

무려 1년을 준비했다. 국립발레단과 화승의 조우를 말이다. 화승이 70주년을 맞는 그해 가을, 함께 좋은 공연을 무대에 올리자는 생각이 닿았고 이번 가을 실행에 옮겨졌다. 화승 70주년 기념, 국립발레단의 <돈키호테>. 쉽게 만날 수 없는 작품인 만큼, 부산 기념공연에 대한 임직원들과 지역민들의 관심과 호응이 뜨거웠다. 정의와 사랑, 명예를 위해 끊임없이 도전하는 돈키호테를 발레로 감상할 수 있는 화승 70주년 기념공연, 부산시민회관 50주년을 맞아 화승과 공동 주최해 더욱 특별한 공연으로 남았다.



이미지 제공 국립발레단



화승과 발레, 축하와 관심으로 콜라보된 공연

<돈키호테>는 스페인 작가 세르반테스의 소설을 모티브로 한 발레로 1869년 초연 이후 꾸준히 관객들의 사랑을 받아온 세계적인 작품이다. “화승 70주년 기념 2023 국립발레단이 야심차게 선보이는 신작!” 관객들의 예술적 취향을 저격한 홍보 문구 때문이었을까, 티켓 발매 전부터 많은 이들의 관심과 문의가 이어졌다는 후문이다.

9월 16일과 17일 두 차례 공연 중 17일 공연을 단체 관람으로 진행했던 본 공연은 매회 1,600석이 넘는 부산시민회관 대극장을 꽉 메웠다. 드디어 막이 오른 발레 <돈키호테>. 30년간 세계적인 발레리나로서 최고의 무대를 선보였던 강수진 단장, 본격적인 공연 시작에 앞서 화승 70주년에 대한 축하 인사도 잊지 않았다.

“

안녕하세요, 국립발레단 단장, 강수진입니다. 이렇게 공연장에서 직접 인사를 드리게 되어 기쁩니다. 저희 국립발레단은 지역 공연에 많은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부산 지역에도 1년에 1번 정도는 공연을 올리고자 노력하고 있지만, 연습과 공연이라는 빠듯한 일정으로 부산 지역을 자주 찾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부산 시민분들께서 더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다면 부산에서 더 많은 공연을 함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끊임없는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의미있는 행사인 화승 70주년 기념공연으로 부산을 찾을 수 있게 되어 매우 영광입니다. 국립발레단 <돈키호테>는 국립발레단 소속 무용수로 활동하고 있는 솔리스트 송정빈 씨의 재안무로 만들어져 올해 4월, 서울 예술의전당 오페라극장에서 처음 공연되었습니다. 2막 2장으로 만들어진 국립발레단만의 <돈키호테>는 아주 유쾌하고 흥이 넘치는 작품으로, 원작과는 또다른 재미를 느끼실 수 있으실 것이라 믿습니다. 관람 중에 즐거우실 때나 감동받으시는 순간에는 언제든지 박수와 브라보를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해볼까요? “브라보!” 좋습니다! 공연 때에는 지금보다 훨씬 큰 박수소리와 브라보를 기대하겠습니다. 이 공연을 화승과 함께할 수 있어 진심으로 기쁩니다. 화승의 70주년, 부산시민회관 5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이제 돈키호테의 막을 올리겠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즐겨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풍부한 볼거리와 즐거움을 선사한 <돈키호테>

관객들의 열띤 박수로 시작된 국립발레단의 <돈키호테>는 타이틀롤에 맞게 돈키호테에 비중을 실었다. 그동안 발레의 특성을 많이 살려 젊은 연인 바질과 키트리와 춤이 강조되다 보니 주객이 전도된 듯한 느낌을 받곤 했다. 그러나 이번 작품은 명장면인 키트리와 바질의 결혼식 그랑 파드되 등 원작의 감동은 그대로 살리되 캐릭터와 스토리에 크고 작은 변화를 주어 현실과 환상의 세계를 넘나드는 풍부한 볼거리와 즐거움을 선물한다.

발레 <돈키호테> 작품의 개요는 이렇다. 책을 읽다가 잠이 든 돈키호테는 꿈속에서 우아한 매력의 돌시네아라는 여인을 만나지만 괴물들이 그녀를 납치해간다. 너무 생생했던 꿈에서 깨어난 돈키호테는 산초 판자와 함께 꿈속 여인을 구하기 위한 여정을 떠난다. 그러다 바르셀로나의 선술집에 들르고, 그곳에서 이룰 수 없는 사랑에 빠져버린 연인 키트리와 바질을 만나게 되면서 정의와 사랑의 기사, 돈키호테의 모험은 시작된다.

발레 <돈키호테>는 총 2막 2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1막 1장 바르셀로나 광장을 시작으로 1막 2장 달빛 아래 숲속, 2막 1장 돈키호테의 꿈, 2막 2장은 다시 바르셀로나 광장으로 옮겨오면서 무대는 마무리된다. 태양보다 뜨겁게 달아오른 바르셀로나 광장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아름답고 고혹적인 발레 동작들과 정열적인 의상과 음악, 열정 가득한 무대 열기는 관객이 자리한 객석까지 전해진다.

공감과 찬사가 어우러진 문화예술의 대향연

<돈키호테> 공연은 인터미션 20분을 포함한 115분간 진행되었다. 화승 70주년을 기념한 공연은 관객들에게는 보고 듣고 공감하는, 소위 발레의 매력에 푹 빠질 수 있는 시간을 선사했다. 객석에서는 “브라보~ 브라보~” 하는 외침과 함께 환호의 박수가 터져 나왔다. 70주년을 맞은 화승과 부산시민회관 입장에서 부산의 지역소외 계층을 초대하여 시민뿐만 아니라 화승 임직원들에게 세계 수준의 발레리나, 발레리노들의 무대를 가까이에서 감상할 기회를 제공했다는데 점에서 보람 있고 뿌듯한 시간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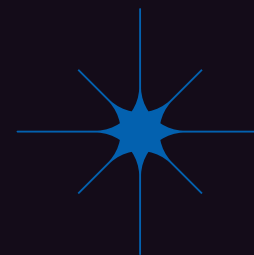
「돈키호테」는 세계 최초의 근대소설로 평가받고 있고, 소설 원작에서는 당대의 기사도 정신을 비판하고 풍자했다는 평을 듣는다. 수많은 유명 작가들에게 영감을 준 이 작품은 연극, 영화, 발레 등 다양한 장르를 통해서도 만날 수 있다. 발레 <돈키호테>가 바로 그 장르 중 하나다. 다소 엉뚱하고 무모해 보이지만 꿈을 행동으로 옮기는 돈키호테, 그의 정신만큼은 배울 점으로 해석해보자. 공감과 찬사, 축하가 어우러진 문화예술의 대향연, 70년 화승의 진심이 오롯이 전해지는 순간이었다. 70



한밤에 화승으로 대동단결,

70주년을 홍경민과 함께하다

한낮의 유(U;)콘서트를 한밤의 유콘서트로 함께했다.
화승 70주년을 기념하는 특별한 공연으로. 화승 임직원 200여 명이 함께한 흥겨운 밤, 가수 홍경민은 여전히 객석을 들었다 놔다 했고 변함없는 가창력으로 귀 호강을 선사했다. 한밤에 화승으로 함께 대동단결한 홍경민, 살아있네!



재즈밴드 위나의 위무로 가득한 시간

가수 홍경민 공연 전, 재즈밴드 위나의 공연이 시작되었다. 'Fly me to the moon'을 시작으로 재즈의 깊은 음감을 알려준 위나는 '모든 날 모든 순간', '바람이 불어오는 곳' 등 친근한 노래에 이어 재즈곡으로 무대를 빛냈다. 재즈를 기반으로 팝, 가요 등 다양한 장르들을 유니크한 사운드로 편곡해 진하면서도 편안한 음악을 객석에 선사했다.





화승 70주년, 남다른 흥으로 남다

꽤 오랜 활동으로 20대의 그 풋풋한 느낌은 아니었지만, 여전히 열정적인 노래와 친근한 입담으로 좌중을 흔드는 그의 매력에 폭 빠진 시간이었다. 화승 70주년의 의미를 알려준 사회자의 멘트처럼 한밤, 즐겁게 즐기다 보니 어느새 훌쩍 마칠 시간이 왔다. 헤어지는 시간이 너무나 아쉬웠던 역대급 유콘서트, 많은 가수 중에 그를 선택한 보람이 충분한 밤이었다. 70



드디어 홍경민, 그래서 홍경민

소리 없이 강하다! 공연계의 소리 없는 강자, '홍경민'이라는 수식어가 찰떡이라는 건 그의 공연 시작되자마자 바로 느낄 수 있었다. '첫인상, 후, 흔들린 우정, 내 남은 사랑을 위해'로 이어진 가수 홍경민의 히트곡을 지나 KBS 불후의 명곡에서 불후의 명작을 만들어 냈던 '사랑은 나비인가 봐, 휴식 같은 친구'까지 구수한 입담과 함께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어진 1시간 남짓한 그의 독무대.





화승 70주년 경축, 강렬한 색채의 향연

색채의 마술사,
김용기 화백 초대전



화승, 70주년을 기념한

특별 전시 개최

화승은 2023년 창립 70주년을 맞아, 그동안 월별로 기념행사 및 다양한 문화 이벤트를 실시해왔다. 지난 8월 17일에는 ‘색채의 미술사’로 불리며 국내보다는 해외에서 주목받았던 고(故) 김용기 화백의 초대전이 벌어졌다. 부산시 연산동 화승 사옥 2층 ‘스페이스 장천’에서 진행된 이번 초대전은 8월 7일 화승의 새로운 CI 공개 이후, 첫 사내 행사였다.

화승 70주년 기념 특별 전시였던 <김용기 화백 초대전> 오프닝에는 현승훈 회장과 김 화백의 아들이자 화승 사외이사인 김진국 전 경시대 교수를 비롯해 허성룡 화승코퍼레이션 대표, 박동호 화승네트웍스 대표 등 사내외 인사 70여 명이 참석했다.

“저 또한 화승과 같은 1953년생으로 올해 70입니다. 이처럼 뜻깊은 자리에 저희 아버님의 작품을 전시할 수 있게 되어 정말 기쁘고 영광스럽습니다.” 김진국 교수의 오프닝 인사말을 시작으로 작품소개 영상, “특별하게 마련된 자리인 만큼 참석자들, 관람객들 모두 예술의 향연에 흠뻑 빠질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허성룡 대표의 축사도 있었다. 오프닝의 마지막은 도슨트로 나선 김진국 교수가 진행하였다. 화승 현승훈 회장을 비롯한 관람자들을 위해 작품 하나하나에 대한 설명뿐만 아니라 작품 관련 에피소드도 함께 전했다.



강렬한 색채 속

예술혼 담긴 기념 전시

독학으로 그림을 시작한 김용기(1923~2020) 화백은 평생 그림만 그리며 살아왔다. 94년 그림 인생을 담은 이번 초대전에는 사실적 구상화에서 구상과 추상을 병행한 다양한 표현의 작품들을 선보였다. 작가는 1960년 대한민국 미술대전에서 특선을 차지했으며 71년에 도불(渡佛), 그곳에서 코트다쥐르 국제미술대상전 대상, 칸 국제미술전 안티비시장상, 프랑스 르살롱전 대상 등을 수상했다.

프랑스를 비롯해 이탈리아, 벨기에 브뤼셀 등에서 활동했던 김용기 화백은 거침없고 과감한 색채 표현으로 ‘색채의 미술사’라 불리며 70~80년대를 활발하게 보냈다. 동료 화가이자 이웃 주민이었던 박수근 화백으로부터 독특한 화풍의 영향을 받기도 했으며 여러 차례 개인전을 펼치기도 한 우리나라 화단(畫壇)의 원로였다.

이번 초대전에서는 김용기 화백 작품 이외에 아들 김진국 교수가 달빛이 내려앉은 화승원을 담은 그림 한 점과 아버지 그림을 모사한 작품도 만날 수 있다. 그림을 정식으로 배우지 않았지만, 평생 선친 곁에서 보고 따라서 그린 솜씨로 2018년에는 부자전(父子展)을 열기도 했다.

이번 화승 70주년을 기념한 특별 전시에 선보인 작품으로는 김용기 화백의 강렬한 색채 미학과 예술 투혼을 엿볼 수 있는 ‘건물’, ‘하얀 장미 붉은 장미 조화’, ‘산마르코 대성당’, ‘Vennis’, ‘Paris’, ‘고양이와 병아리’, ‘도자기 파는 소녀’, ‘굴비’ 등 20여 점으로, 8월 30일까지 ‘스페이스 장천’을 찾은 관람객들과 함께했다. **70**



**심표에서 느낌표로,
화승 신입사원
봉사단의
와타캠프 참여 현장**

지난 9월, 경기도 가평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에서 2박 3일간 열린 '2023 세계예술치유축제(이하 WATA(와타)캠프)' 코로나19가 끝나고 오랜만에 열린 와타캠프는 또다시 감동이었다. 장애아동 형제들, 그리고 봉사자 모두가 하나되어 즐거운 예술체험과 볼거리를 즐겼던 1박 2일간의 캠프 일정은 지난 3년간의 심표는 온데간데없이 사라지고 느낌표만으로 가득했다.

'불금'에 꿀 같은 주말을 반납하고 15명의 화승 봉사자들이 와타캠프로 향하는 버스에 몸을 실었다. 왕복 12시간의 이동 거리, 쉽지 않은 여정이었지만 자발적으로 봉사에 참여하겠다고 한 우리의 슈퍼히어로 신입사원들은 그렇게 가평에 도착했다. 산속에 위치한 캠프장, 숨을 곳도 도망칠 곳도 없다. 오로지 봉사만 있을 뿐. 분명 힘들지만 즐거울 것이라는 담당자의 말에 속아(?) 봉사 장소에 도착한 그들의 첫마디.

“공기는 좋네요...”

무사히 첫날 봉사자 교육을 끝내고 대망의 이틀째 날이 밝았다. 남은 1박 2일간 함께할 짝지 아동 한 명씩을 배정받고 '함께 놀아야' 한다. 떨리는 첫 만남과 함께 매년 그렇듯 파워풀한 아이들과 이리저리 뛰어다닌다. 세계예술치료협회에서는 더운 날씨에 완벽한 놀이를 준비했으며 축구장 절반 크기의 대형 수영장을 공개했다. 아무리 날고 긴다는 20대의 청춘이면 뭐하나. 아이들의 에너지이자 체력 앞에선 순식간에 심신이 지쳐간다. 즐겁게 웃으며 놀고 있는 봉사자에게 가서 “얼마나 즐겁길래 그렇게 웃고 있냐”고 물었다. 그랬더니 리쌍의 노래 가사 한 구절을 들려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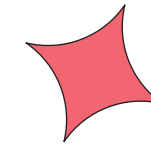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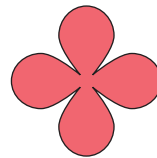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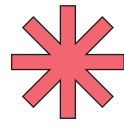


“제가 웃는 게 웃는 게 아닙니다...”

육아는커녕 결혼도 안 한 봉사자들이 대다수이다. 본격적인 캠프 프로그램 시작한 지 5시간 정도 지났을 무렵, 부모님의 위대함이 느껴진단다. 어느덧 해가 저물고 캠프에 참가한 모든 사람들이 강당에 모여 협회에서 준비한 예술, 마술 공연을 관람했다. 즐거운 공연에 눈을 떼지 못하는 아이들 덕분에 잠시 앉아 쉴 수 있는 게 더 행복하다는 봉사자. 하지만 몇몇 아이들은 공연보다는 밖에서 뛰어노는 게 더 즐거운가 보다. 옆에서 아이를 쫓아다니던 봉사자가 말한다.

“선임님, 살려주세요~!”

다음 날이 밝았다. 전날 저녁 화려한 공연 덕분에 아이들의 아드레날린이 더욱 쏟아져 나왔나 보다. 쾅해진 봉사자들의 눈은 점점 초점을 잃어 갔지만 확실히 아이들과는 더 가까워져 있었다. 손을 잡고 끌어안고, 하룻밤이지만 그들은 확실히 교감한 듯 보였다. 갖가지 화려한 프로그램들을 모두 마치고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1박 2일간의 동행은 아쉬움이 가득한 포옹으로 마무리됐다. 아이들과 함께한 캠프 일정 중 '장애'라는 단어는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다. 함께하면 저절로 사라지는 편견, 신나게 노는 것이 최고의 치유. 와타캠프의 참 의미를 봉사자들도 깨달을 수 있었다.



화승은 오래전부터 다양한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진행하고 있다. 회사에서 진행되는 봉사활동이 조금 더 진정성 있는 참여로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으로 준비한다. 모두에게 긍정적인 성과를 기대할 순 없겠지만 몇몇은 진정성을 크게 느끼는 것 같다. 이번 캠프에 참여한 직원 봉사자 한 명의 문자메시지를 끝으로 와타캠프 봉사의 의미를 정리해보고자 한다.

‘선임님, 무사히 집에 잘 도착해 씻고 누웠습니다. 분명 쉽지 않았지만, 마음 한편에 큰 감동과 행복이 남았네요. 보람찬 봉사활동이었습니다!!!’

우리 모두의 삶이 ‘...’에서 ‘!!!’으로 바뀌는 행복한 세상이 되길 간절히 기원해본다. 70

알기 쉬운 공정거래(하도급) 법령 및 제도(2)

'23년도 상반기 공정거래위원회 제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 적용되는 하도급 거래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위탁(재위탁 포함) 등을 하고,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목적물을 납품 인도 제공해 그 대가를 받는 행위로서,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가 자동차부품 일부를 제조 위탁하는 경우를 예로 들 수 있다.

거래계약서의 작성과 대금 결정 및 지급은 위와 같은 하도급 거래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부분으로,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하도급 관련 서면 발급 및 보존, 하도급대금의 결정이나 지급과 관련된 제재를 하였다. 아래에서는 이와 같은 공정거래위원회의 '23년 상반기 주요 제재 및 관련 하도급 거래 주의사항을 살펴보겠다.

1. S사의 서면 미발급 또는 지연 행위 ▶ 재발방지명령 및 과징금(3,600만 원) ('23. 6.)

- S사는 2019. 9.~2020. 4. 기간 동안 선박 전기장치 및 기계장치 작업 임가공을 위탁하면서, 작업내용과 하도급 대금 등 기재사항을 적은 서면을 지연 발급(19건)하거나, 미발급(10건)하였다.

2. S사의 추가위탁/변경위탁에 대한 서면 미발급 행위 ▶ 시정명령 ('23. 4.)

- S사는 2018. 4월 말 선박블록 조립작업 위탁에 대해 물량 및 단가를 변경하였음에도, 추가 또는 계약 내역 변경 위탁에 대한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지 않았다.

하도급거래 관련 서면 교부 시 필수 기재 사항(하도급법 제3조)

- 1) 위탁일과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것(이하 “목적물 등”이라 한다)의 내용
- 2) 납품·인도 또는 제공하는 시기 및 장소
- 3) 감사의 방법 및 시기
- 4) 하도급대금(선금, 기성금 및 그 조정된 금액을 포함)과 그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 5)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 필요로 제공하는 그 원재료 등의 품명·수량·제공일·대가 및 대가의 지급 방법과 지급기일
- 6) 제조 위탁 후 목적물 등의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의 요건, 방법 및 절차(하도급법 제16조의1)
- 7) 하도급대금의 연동에 관한 사항* (2023. 7. 18. 신설 및 2023. 10. 4. 시행)

*하도급 대상 목적물 등의 명칭, 주요 원재료, 조정조건, 기준지표 및 산식 등
◉ 위 정해진 사항 모두 기재하여, 위탁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서면 발급
◉ 계약 내역이 추가 또는 변경된 경우에도 서면 발급

3. T사의 서면 미발급, 하도급대금 및 어음할인으로 미지급 ▶ 지급명령, 재발방지 명령 및 과징금(1,600만 원) 부과 ('23. 7.)

- T사의 장비 제작 등을 제조위탁하면서, 하도급법령에 정해진 검사방법 및 시기, 위탁일과 위탁 목적물, 납품 장소 및 시기, 조정요건 등 기재사항을 서면에 미기재하거나, 지연하여 발급하고,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지 않고 일부 서면을 교부하였다.
- T사는 하도급대금 지급 과정에서 목적물을 수령했음에도 일부 하도급대금(약 1,800만 원)과 어음할인료를 미지급했다.

하도급대금의 지급 시기 및 조건(하도급법 제13조)

- 하도급대금은 목적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지급(60일 초과시 지연이자 지급)
- 발주자로부터 위탁과 관련해 받은 현금비율 이상 지급
- 어음으로 지급시, 어음을 교부한 날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 어음할인료 지급(공정위 고시 할인율, 연 7.5%)

4. U사의 단가인하 합의 소급 적용 ▶ 지급명령, 시정명령 및 과징금(3,800만 원) ('23. 3.)

- U사는 2019. 2. 27. 수급사업자 A사에게 자동차부품 제작 단가를 생산성 향상을 이유로 인하하기로 A사와 합의 하고, 합의일 이전(2019. 1. 1.~2. 26.)에 제조가 완료된 제품에까지 인하단가를 소급 적용해 하도급대금(4,264만 원)을 감액하였다.
-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향후 동일 또는 유사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시정명령하고, 감액된 하도급대금(4,264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하였으며, 3,8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70**

「하도급법」 제11조(감액금지)

- ① 원사업자는 제조 등의 위탁을 할 때 정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를 입증한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수 있다.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사업자의 행위는 정당한 사유에 의한 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2. 수급사업자와 단가 인하에 관한 합의가 성립된 경우, 그 합의 성립 전에 위탁한 부분에 대하여도 합의 내용을 소급하여 적용하는 방법으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화승 꿈틀 프로젝트 6기 발대식, 성공리에 마쳐 2014년부터 직원 봉사자, 수혜대상자 1:1 매칭 봉사 진행

지난 8월 26일 화승의 사회공헌 프로그램인 화승 꿈틀 프로젝트 '함께 꿈틀' 6기 발대식이 부산 사옥에서 있었다. 올해 화승 꿈틀 프로젝트 참가자는 화승 임직원 5명과 부산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 장애인 5명이 1:1로 매칭되어 스마트팜과 포슬린아트 교육 과정을 진행하게 된다. 꿈틀 프로젝트는 화승과 부산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이 협약 체결을 통해 전문 기관들을 섭외하고 봉사자와 수혜대상자들에게 전문 교육 과정을 지원하는 것으로, 이번 6기 활동의 시작을 알리는 발대식을 성공리에 마쳤다.

‘2023 화승 꿈틀 프로젝트 발대식’을 진행한 화승 그룹홍보실 김병호 실장은 “단순 기부 형식의 사회공헌 활동을 넘어 임직원의 진정성 있는 참여가 빛을 발하는 화승의 대표적인 사회공헌 프로그램”이라며 “특히 꾸준히 ESG 활동을 펼치고 있는 화승에게 참가자들의 이번 활동이 내부 임직원은 물론, 주변 이웃들에게 또 다른 선한 영향력으로 전달되길 기대해본다”고 말했다.

화승 꿈틀 프로젝트는 장애인, 저소득 청소년 등 취약계층의 자립을 지원하는 화승의 대표 사회공헌 프로그램으로 일반적인 단순 기부형 활동과 달리 임직원 봉사자의 자발적인 참여는 물론 지역사회에서 진정 필요로 하는 취약계층의 ‘자립’이라는 명확한 니즈(needs)를 잘 반영해 성공적인 사회공헌 활동으로 업계의 평가를 받고 있다.



화승, 집중호우 피해지역 복구 성금 2억 원 지원

화승(회장 현승훈)은 지난 7월 19일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최금식)에 2억 원의 성금을 전달했다. 장마로 인한 집중호우로 연일 기록적인 폭우와 누적 강수량으로 피해가 늘어 가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지원금이다.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한 이번 성금은 피해 지역의 시설 복구는 물론, 이재민 생계비 및 구호 물품 지원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집중호우 피해지역 복구 지원금 전달식에 참석한 화승네트웍스 박동호 대표이사는 “이번 폭우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을 돕기 위해 화승 경영진은 물론 임직원들이 한마음으로 뜻을 모아 긴급 지원을 결정하게 됐다”며 “기부 성금이 집중호우 지역의 조속한 피해 복구와 이재민들의 일상 회복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 환영회展 &

황성제 · 윤진석 · 심승보 그리고 김수환 작가 초대전

일 시 2023년 10월 17일 ~ 27일

장 소 화승 사옥 2층 스페이스 장천

화승으로 온 걸
**환영해
고마워**
화승직원이어서

화승과 함께 세상의 편견을 깨고, 닫고 일어난
발달장애 청년작가들의 이야기

장애인들에게 첫 출근은 어떤 의미일까? 세상과 마주하는 첫 순간!
그 순간을 화승 직원으로 함께하게 된 세 작가의 출근을 환영하는 뜻깊은
전시와 환영회 전, 화승의 사회 공헌 파트너인 WATW(세계 예술치료협회)가
발굴한 김수환 작가도 함께 특별한 환영식을 엽니다.

HWASEUNG



1953 

1965 

1978 

1983 

2005 

2023 화승의 새얼굴

HWASEUNG

화승70주년,
100년을 향한 항해가 시작됩니다.
새로운 얼굴로 새로운 미래를 엽니다.

HWASEUNG

화승 블루 스타(blue star) 컬러 :
인화를 모티브로 크리에이티브하면서 유연하고 끊임없이 도전하는 화승의 가치를 담은 컬러입니다.



자동차부품



소재



화학



스포츠패션ODM



종합무역

HWA**HWASEUNG**

HWA

HWASEUNG**HWA****HWASEUNG****HWA****HWASEUNG****HWA****HWASEUNG****HWA****HWASEUNG****HWA****HWASEUNG****HWA****HWASEUNG**

WWW.SIEMENS.COM

HWA

